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3.10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전쟁도 'TACO'? 트럼프 종전 발언, 미국 증시 반등

- 미국 증시 주요 지수 반등: 나스닥 +1.38%, 러셀2000 +1.12%
- 트럼프, 이란 전쟁 조기 종료 가능성 언급..유가 급락, 투자심리 회복
- 이란 사태로 가려진 사모신용 부실, 뇌관 될까..경계감↑

Summary

3월 9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급반등하며 일제히 상승 마감함.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50% 상승한 47,740.80에 마감했고 S&P500지수는 0.83% 상승한 6,795.99에 거래를 마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8% 상승한 22,695.95에 거래를 마쳤고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은 1.12% 상승한 2,553.67에 마감함.

시장은 장 초반 국제유가가 급등해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한 가운데 하락 출발했지만 G7 재무장관들이 시장 상황과 에너지 가격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비축유 방출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자 안도.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란군은 이제 해군도 통신도 공군도 갖고 있지 않다며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그것을 장악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짐. 이 같은 소식들은 유가 상승 요인을 일거에 불식시키며 국제유가 반락으로 이어졌고 증시 반등을 견인함. WTI는 배럴당 85달러 수준까지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93% 급반등.

한편 이 날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잦아들며 반등한 시장에서도 금융주는 대체로 약세권에 머물렀음. 전쟁 공포로 가려졌던 사모신용 부실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는 방증. 지난 6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운용하는 사모신용 펀드가 환매 요청을 견디다 못해 자금 인출 제한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했다는 소식은 사모신용 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던져줌. 월가에서는 블랙록의 조치가 다른 중소형 사모신용펀드의 인출 압력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환매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옴. 사모신용의 균열이 더 불안한건 이 시장이 AI 자본 지출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기 때문. 씨티는 관련해 "중동 리스크보다 중요한건 시장에 쌓인 AI 고밸류에이션 부담과 사모신용 불안이 자산시장으로 번질지 여부" 라고 지적하기도.

(다우 +0.50%, 나스닥 +1.38%, S&P500 +0.83%, 러셀2000 +1.12%)

특징종목

금융과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강세로 통신서비스가 1% 이상 상승했고 전쟁으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던 반도체 업종이 종전 임박 기대감에 급반등.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3.93% 급등한 가운데 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종목이 상승. ASML((+5.0%)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5.14%), AMD(+5.33%), 램 리서치(+5.93%), 인텔(+4.97%) 등이 5%내외 상승.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 기술 거대 기업 모두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2.72%)와 알파벳(+2.70%)이 2%대, 브로드컴(+4.62%)이 4%대 상승 마감.
오라클(-0.92%)이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하락. 바클레이즈는 오라클의 AI 매출과 환율 여건이 긍정적이지만 선제 투자와 26년 하반기 비용 확대로 인한 마진 압박이 우려된다며 목표가를 기존 310달러에서 230달러로 26% 하향 조정한다고 밝혀. 다만 장기 성장 스토리가 긍정적인 가운데 단기 마진 부담을 반영한 부정적 센티먼트는 장기 투자에 있어 기회라는 의견으로 투자의견은 '비중 확대'를 유지.
노보 노디스크(+3.11%)는 지난 2월 미국 원격 의료 기업 힘스 앤드 허스 헬스(+40.79%)를 상대로 위고비 알약의 대체제로 판매된 49달러짜리 조제약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음. 다만 노보 노디스크는 힘스 앤드 허스의 플랫폼을 통해 자사의 대표적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오젬픽을 판매하기로 합의하며 법적 분쟁을 종결 짓기로 함. 이 소식에 힘스 앤드 허스가 급등했고 노보노디스크도 강세. 경쟁사 일라이 릴리(+1.82%)도 소폭 상승.
종전 가능성이 제기되며 보잉(-2.64%), 록히드 마틴(-1.13%), 노스롭 그루만(-1.16%), RTX(-0.73%) 등 방산주가 약세 전환했고, 시장 하락 구간 반등했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도 이 날은 하락. 세일스포스(-1.64%), 서비스나우(-1.94%), 인튜이트(-1.56%), 어도비(-0.42%).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국채 금리는 유가 상승 구간 오름폭을 확대하다 유가가 반락하자 하락으로 돌아섬. 2년물은 전일 대비 2.5bp 하락한 3.535%, 10년물은 4.3bp 하락한 4.095%를 기록. 30년물 금리도 4.3bp 하락함.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도 유가 흐름과 맞물려 약세. 달러인덱스(DXY)는 98.735 수준으로 하락. 달러/엔 환율도 157.73엔으로 전일 대비 레벨을 낮춤. 상품 시장에서는 아시아 거래에서 장 중 119.48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던 WTI가 급격한 변동성을 보인 끝에 오름폭을 줄여 전장 대비 4.26% 상승한 배럴당 94.77달러에 마감함. 장 중 낙폭을 확대하던 금과 은값은 달러 약세에 낙폭 축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